

## Takayasu 동맥염의 외과적 치료 경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일반외과학교실  
김옥생, 성 숙환, 안 혁 김 상준

본 교실에서는 1986년 부터 1993년까지 18명의 Takayasu 동맥염 환자에서 19례의 수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들은 여자가 13명이고 남자가 5명이었으며, 나이는 17세에서 47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28.8세였다. 환자들을 수술 전 혈관조영술에 따라 분류해보면, type I이 4명, type II가 6명, type III이 7명, 그리고 type IV가 1명이었다.

수술명은 다음과 같다. 신장의 자가이식(3례), 대동맥판막 치환술(2례), 상행대동맥에서 양측 내경동맥으로의 우회술(2례), 일측 신동맥 우회술(2례), 양측 신동맥 우회술(2례), 하행 흉부대동맥 치환술(1례), 상행대동맥에서 하행 복부 대동맥으로의 우회술(1례), 상행 대동맥에서 우측 내경동맥으로의 우회술(1례), 상행 대동맥에서 우측 내경동맥 및 좌측 쇄골하동맥으로의 우회술(1례), 좌측 흉경동맥에서 좌측 쇄골하동맥으로의 우회술(1례), 폐동맥 성형술(1례), 그리고 기타(2례) 등이었다.

조기 사망환자는 없었으며, 조기 합병증으로 오십 어깨, 도관 내 혈전증, 그리고 반신마비가 각각 1례 발생하였다.

환자들의 평균 추적기간은 42.8개월이었으며, 만기 사망은 1례에서 수술 후 5년후에 발생하였다. 1례에서 1년 2개월후 재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이외의 환자들은 수술 후 증상의 호전이 있었다.